

춤이란 무엇인가.*

이 애 주

들어가는 말

오늘에 있어 춤에 대한 인식과 의미는 어떠한가, 곧 춤의 현실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가? 유감스럽게도 그 상황은 관념적, 형이상학적, 형식미학적이며 서구지향적인 입장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너무 걸모양에만 치중하는 표피적이며 형식적인 것으로 춤의 본래모습과는 다르게 그 본질을 왜곡, 망각하고 있다.

본질과 현상과의 관계를 보면 현상은 여러가지 방법과 형태로 본질을 표현하며 본질은 현상을 떠나 달리 존재가치가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따라서 지금의 잘못된 춤의 현상을 바로잡아 춤의 본질적 본래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그렇다면 춤의 본질은 무엇인가, 곧 춤이란 어떤 것일까? 한편 우리의 삶과 춤은 어떤 관계이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근원적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확고부동한 원칙과 정확한 기본관점을 가지고, 춤의 본질적 내용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앞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깊이 비판·반성하면서 장차 우리 모두가 수행해야 할 춤 연구의 기본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춤이 삶의 총체적 모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객체화, 대상화된 삶의 부분이 아니라 주체적·사회역사적이며 일상적 삶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명확히 섰을때 그간의 춤에 대한 오류·허구들이 타파되고, 본래적 의미의 춤을 회복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춤은 사람의 정신활동과 육체활동 즉 사상의식과 실천이 합해서 이루어진다. 본 글에서는 그 본질적 물음의 첫번째 문제 제기로 춤의 정신적인 면, 곧 사람의 정신활동·정신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춤의 사상의식적인 면을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요즘 현상을 보면, 눈에 보이는 움직임에만 지나치게 국집함으로써, 그 내면적 정신활동 즉 사상의식적인 면을 소홀히 하여 춤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그간 소홀히 방기되었던 사상의식적인 면에 주안점을 두면서 그 내용을 춤과 사람, 춤과 노동, 춤과 사회, 춤과 진보등으로 세분하여 춤의 본래적 의미를 정립·정리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문교부 학술진흥재단 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1. 춤과 사람

ㄱ. 사람의 본성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인 것이고, 곧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에서 하는 행동 하나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한 반영이며, 그 반영은 능동적·실천적이며 사회역사적이다.

사람을 다른 생물과 구별해 주는 인간고유의 본질은 자연과 합일된 사람 사람이 사회적 관계속에서 창조적인 잠재력을 자유롭게 전개하며,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며, 사람의 위대성은 「사람이 물질세계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구조를 포함한 모든 물질세계의 법칙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존재」(노동자의 철학 I, 49면)라는 데 있다.

요약하면 사람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자연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사람의 이익에 맞게 창조적으로 변화·발전시키며, 개개인의 모든 창조력을 자유롭게 전개하여 사람 자신이 세상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ㄴ. 몸을 통한 춤

자기를 실현하며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자기의 사상과 의식을 표현하는 것인데 사람이 하는 표현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즉 듣고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등 이러한 여러가지 표현양태중에서 춤은 몸으로 하고 있다. 즉 자기를 표현하고자하는 방법은 몸을 통해 표현하며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글, 그림, 노래가 아니라 몸을 통한 춤인가?

사람의 본성은 자기를 표현하면서 자기를 실현하는 것인 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움직이게 되는데, 이러한 움직임 즉 몸놀림이 있고난 후에 소리도 내고 말도 하고 글도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온몸을 놀리어 몸으로 말을 하며 몸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총체적인 표현방법이 춤이다.

또한 그림이나 글 노래등 부분적으로 하는 표현의 한계와 마지막 말의 한계를 뛰어 넘은 사람의 표현양식으로는 가장 적극적·능동적이며 총체적인 방법이다. 사람의 본질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온몸을 움직여 자기를 표현할 때 직접적으로 자기 전체를 내보일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행동양식이며 구체적인 자기 실현방법이다.

따라서 춤이 곧 행동이며 살아가는 자체이고 그 행동이 곧 춤이다. 다시 말하면 행동이 곧 사회적·역사적 실천이며 춤이 곧 예술적 실천인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은 자기 표

현양식의 최고최대차원을 춤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㉔. 춤의 자연발생

춤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아니한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자기실현의 과정이라는 본질적인 면에서, 사람은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한 몸놀림을 하게 되고, 여러 형태의 몸놀림은 바로 춤으로 발현된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본성으로서의 춤을 뜻하고 그 춤은 자신의 모두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본질은 춤추는 것에 있고, 춤추는 것이 곧 사람이다.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정신적 활동을 통해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정신적 요구 문화적 욕구는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구속에서 벗어나면 날수록 그리고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살게되면 될수록 더욱 더 커지고 다양해진다. 이러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축적된 역사적 산물이 문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춤은 인간의 문화적 요구를 대변할 가장 핵심이자 귀중한 부분이다.

춤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물음의 관점은 춤을 보는 의식 자체가 형식미학적 차원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자연스럽게 발전·변화하였다고 보지 않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춤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는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작위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보는 단견적 시각인 것이다. 즉 의도적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보는 논리인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간다면 문화적 지향의 소산인 문화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다. 문화주의란 문화지향적인 것으로 춤이 자연스럽게 창조·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논리이며, 춤과 삶의 관계를 서구미학적 형식미학적으로 보는 대단히 위험한 견해이다.

그러나 춤은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목적과 의식이 자연스럽게 통일되어 목적의식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즉 필요에 의해 필연적으로 목적성과 의식성이 결합된 삶 그 자체인 것이다.

에컨데 먼길을 간다고 할 때 일정한 걸음걸이로만 걷는다면 그 어려움과 팍팍함은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 편안하고 생명력있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몸의 장단을 타는 것인데 즉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몸 장단을 타며 걷는 것이다. 사뿐사뿐 걷는다거나 느리게 걷는다거나 혹은 뛰면서 혹은 쉬는등 몸의 장단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걷는 것이다. 이렇게 갈 때 일정하게 걸음으로서 오는 지루함, 피곤함 등을 잊고 쉽게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춤은 삶의 자연적 소산인 동시에 삶의 자연적 연장이며 발전인 것이다.

다시 춤의 존재가치에 대해 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춤 가치의 유무를 따진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분석방법으로 거기에는 위험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관념적 분석적이며 머리로만 해결하려는 형이상학적 사고로는 춤을 말할 수 없다. 춤은 온몸으로 행동·실천하는 것이며, 온몸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몸의 중심 다시 말하면 가슴의 고통, 심장의 고통이 움직임의 호흡·박자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몸짓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 기본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기본을 틀거리로 하여 모든 몸짓이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춤은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목적의식적으로 나온 소산이며 삶속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이다. 진짜 춤은 삶의 자연적인 연장이며 발전으로 사람의 표현본질인 예술적 표현욕구와 함께 삶 자체의 예술적 형상화이다.

2. 삶의 실현으로서의 춤

자기 삶의 실현으로서의 춤은 무엇인가?

사람의 본질이 생명성·생명력에 있다면 춤의 본질도 바로 생명성·생명력에 있다. 인간은 생명본성의 표현으로서 춤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놀이판에서의 아낙네들·할머니·할아버지들의 춤은 대중일반이 갖고 있는 민중적 생명성이 있는 그대로 들어나는 좋은 예이다. 바꿔 말하면 춤을 따로 배워서 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몸짓 자체가 사람의 속성인 표현욕구와 함께 자연스럽게 예술적으로 연장·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춤이 자기 개인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만 출발한다면 보편적 생명력·추상적 생명력에 매몰될 위험이 있다. 탕거가 「춤의 철학적 고찰」에서 언급한 춤은 “뭔가 움직이는 것, 살아 생동하는 것”이라는 관점은 추상적·관념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실현이라는 자체를 추상화·관념화·형식화해 버리는 셈이 된다. 다시 말하면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동하느냐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덮어놓고 “춤을 추지 않으면 죽는다. 춤은 생명이다.”라는 식으로 삶의 측면을 이해한다면 춤 생명 자체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생명력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삶의 실현으로서의 춤은 무엇인가?

단순히 춤이 자기 삶의 실현이다라고 했을 때 자칫하면 삶의 실현 그 자체가 추상성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삶 모두가 춤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삶의 실현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이다.

사람은 물론 동물들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람의 움직임은 큰 의미에서 역사를 움직이고 살아 생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정신활동 즉 자기의 사상의식에 의한 삶의 실천활동이다. 역사를 움직이고 살아 생동하게 하는 그러한 힘은 바로 사람의 본성인 생명력에서 나오는 것인

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물질세계인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의 법칙을 인식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목적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본성으로서의 삶의 실천활동이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의 요소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제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여러가지 힘이 끼어들어 반생명적·비인간적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추상적 삶의 실현이 아닌 구체적 삶의 실현으로서의 춤이란 자기 삶을 방해하고 억압하며 삶을 강요하는 모든 것과의 대응의 몸짓이며, 그 속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몸짓임과 동시에 그 싸움의 몸짓이 지향하는 염원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몸짓이라야만 삶의 실현으로서의 춤이라 할 수 있다.

예를 한가지 든다면 “양주별산대”에서 나오는 불립중의 하나로 “녹수청산 지화자”, “녹수청산 깊은 골에 청룡황룡이 꿈틀어 지고”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불립은 단지 관념적으로 순수하게 추상적으로 아름답게만 자연을 구가하였을 뿐 자기의 현실적 삶의 구체적인 대응의 몸짓으로서의 표현방법으로는 일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일제식민지시절에 일본 순사들, 관리들, 친일민족반역앞잡이들을 눈가림하기 위해 불리워졌던 것이 그대로 굳어진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으로는 위의 불립이 그 어려웠던 식민지시절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장작은 왜장작”하며 일본인의 머리를 치듯이 구체적인 대응의 몸짓 싸움의 몸짓으로 불리워지고 있기도 했다. 이러한 몸짓이야말로 삶의 실현으로서의 춤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잘못되고 파괴된 본질을 바로 회복시킴과 동시에 염원의 세계로 이어지는 몸짓으로, 춤의 본성인 살풀이성으로서의 진짜 춤의 몸짓인 것이다.

2. 춤과 노동

ㄱ. 춤의 기원

춤의 기원을 원초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춤은 노동으로 부터 출발한다.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함과 동시에 노동은 시작되었다. 동물계로 부터 인간이 갈라져 나온 결정적 역할인 노동은 동물들의 본능적 움직임을 뛰어 넘는 인간의 요구와 목적에 맞추려는 목적의식적 행위이다.

사람은 자연의 재해와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원시공동체사회 초기단계부터 사람 스스로 자주적 몸놀림을 하여 자연을 정복하며 생명을 이어가는 노동생활을 벌여 왔다. 그들 주위에는 항상 수 많은 맹수의 공격과 자연의 재앙 굶주림등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한 자연과 투쟁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의 주체를 세워 능동

적, 적극적으로 몸놀림을 해야 했는데 그러한 몸놀림이 바로 목적의식적 활동으로서의 노동이었다. 이러한 노동은 인간몸짓의 기본이자 생명력의 표현이었다.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아니 한다」(백장어록에서)고 노동의 절대성을 설파했거니와, 한 인간이 노동을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기 확인이었고 구체적인 생존의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주적 몸놀림인 육체노동은 인류의 발생기원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생활의 기저를 이룬 삶의 표현이었다.

이와 같이 살고자 하는 표현은 자기 자신의 주체적 몸짓, 몸놀림으로 나타났고 그것은 다름아닌 바로 춤이었다. 춤은 이러한 노동과정에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실천의 요구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였다.

즉 노동의 시작과 더불어 춤은 시작된 것이다.

ㄴ. 생산적 노동으로서의 춤

앞서 본 바와 같이 춤은 노동의 과정에서 사람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실천의 요구·발전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사람의 사회적 실천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간의 생산적 노동이었다. 바꿔 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며 살아가는 인간의 행위는 생산적 활동으로서의 노동이라 하겠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무엇보다도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제일 우선적인데 이같이 필요한 물질적인 모든 것을 생산하는 일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가장 밑바탕이 된다. 그래서 역사의 발전도 이러한 물질적 생산과 함께 비롯된다. 이렇듯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 사회의 모든 생활과 역사발전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산적 노동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적 실천의 행위이다.

이러한 실천과정에서 노동으로서의 춤은, 사람이 살기 시작한 초창기 원시종합예술 형태일 때 부터 인간의 생산활동과 생산활동사이의 휴식 및 내일의 생산적 노동에 대한 준비라는 측면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었고, 나아가서는 하나의 필수적인 삶의 의식으로 자리잡았다. 예를 들면 원시시대의 수렵단계에서 사람은 사냥하기 전에 그 대상이었던 동물들을 그들이 살던 동굴의 벽에 그려 놓고, 전투적이며 주술적인 몸짓으로 사냥하며 승리하는 행위를 표현함으로써 마술의 효과를 기대했고 더 많은 동물들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원시종합예술로서의 주술적인 몸짓 즉 춤이란 행위를 통해 집단의 단합을 도모하고 주술적 차원을 넘어 하나의 믿음으로 발전하면서 힘을 가다듬고 축적하였다.

ㄷ. 노동의 구조와 춤의 관계

노동의 연장으로서의 춤을 본다면 생산과 연결된 몸놀림으로부터 춤이 시작되며, 춤의 기본구조는 노동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노동의 흐름·노동의 과정에서 춤의 구조를 파악

한다면 노동의 현장, 노동의 현실이 큰 의미의 춤의 구조가 된다.

노동의 몸짓·몸놀림이 인간 몸짓의 기본임이 분명하지만 그 자체가 예술이 될 수는 없다. 노동의 몸짓, 일의 몸짓을 기본으로 해서 노동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했을 때 노동의 지루함·어려움 등이 타파되며, 그것을 춤이라 정의한다.

모든 몸놀림이 다 춤이 아니듯, 일하는 자체에서 생산이란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노동, 몸놀림이라할 수 있다. 이렇게 건강한 몸놀림인 노동의 몸짓을 기본으로 해서 춤이 형성된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망치질을 해야 물건이 생산되는데, 망치질하는 몸짓 그 자체가 춤은 아닌 것이다. 그 몸짓을 기본으로 해서 일의 능률을 올리며 생산력을 높이는 발전적인 몸짓이 자연스럽게 형상화 됐을 때, 다시 말하면 노동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했을 때 그것을 춤이라 하는 것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 “밀양백중놀이”중 계속 모를 심으면서, 안으로 모여들었다가 흩어지는 동작이 있는데 그것은 모를 심는 노동의 몸짓이 상징적으로 형상화 된 것이다. 모를 심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지루하고 힘이 들 때, 허리를 펴고 팔을 위로 흔들면서 제자리에서 솟구치며 땀으로서 온몸을 편안하게 풀어 버리고 노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또한 편안한 상태에서 다시 힘을 얻어 다음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한 예를 보더라도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이 들 때 그러한 동작들을 함으로써 일을 쉽게·즐겁게 풀어나가고 더욱 더 가치있게 만든다.

생산과 관계된 노동을 더욱 가치있는 노동으로, 노동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몸놀림을 춤이라 정의할 때, 노동의 구조와 춤의 구조는 불가분의 깊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노동의 사회적 실현으로서의 춤

지금까지 살폈듯이 일을 함으로써 생산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움직임, 운동 그 활동이 춤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춤이 될 수 없고, 한걸음 나아가 노동의 예술적 연장과 발전적 과정이어야 하며, 노동의 결과를 전 사회적으로 실현할 때 그 몸짓을 춤이라 할 수 있다. 즉 노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노동활동인 동시에 생산활동이며 창조활동이며 그것이 바로 춤이다. 그러나 그 노동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를 제대로 즐길 수 없을 때, 또한 생산활동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형태가 변천하여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됨에 따라, 비인간적·반생명적인 여러 형태의 힘이 작용하여 생산활동을 깨뜨리며 하나의 지배로 몰고 가는 현상이 생긴다. 이럴때 사람은 누구나 그 힘과의 싸움속에서 자기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 반전된 상황을 쟁취하여야만 한다. 그것은 다시 말해 제대로 사람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며 마침내 자기를 바로 세워 삶의 실천으로서의 전 사회적 실

현을 하게 된다.

따라서 춤은 노동의 예술적 연장임과 동시에 노동의 결과를 보편적으로 관철하려는 일련의 상황쟁취의 미학이며 그 실천의 예술적 형상화이다.

3. 춤과 사회

ㄱ.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과 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살아야 할 의미도 없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면서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은 더욱 크게 다져져 목적의식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정치생활을 기본으로 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이면서, 사회 그 자체이기도 하다.

보통 춤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면 춤과 사회와의 관계로 규정지어 진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당연히 사람과 사회는 동떨어진 개체로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출현과 더불어 춤은 필연적으로 발생했고, 사람은 사회속에서 살아가므로 춤과 사회는 둘이 아닌 바로 한 묶음을 알 수 있다.

「한 생각을 일으키고, 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전 삶을 관통한다」(기신론중에서)고 했다. 사람의 필연적 요구에 의해 시작된 춤은 삶의 부분적 성취로서나 단편적 목적수행이 아니라, 전 삶속에서 궁극적 자기실현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전 역사적·전 사회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하듯이, 사회적 의식은 춤을 규정하며 반대로 춤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상호 규정의 심화·확대는 곧 바로 자기 삶의 실현을 극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회향의 극대화를 의미한다.

ㄴ. 사회적 운동과 춤

「개개의 물질적 존재는 그 본질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각각의 특유한 운동을 하고 있다. 인간사회가 다른 물질적 존재와 구별되는 것은 사회적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운동형태는 인간사회 이외의 어떤 것에서도 없다」(노동자의 철학 I, 117면).

사람은 출현이후 끊임없이 합목적적·목적의식적 사회적 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런 사회적 운동의 결과로 개인과 사회의 발전 및 실현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 사회적·운동형태가 역학적 생물학적 몸짓의 표현이면서 또한 생산적인 노동의 몸짓과 함께 인간관계적인 몸짓하고도 연결된다.

예를 들면 기쁠 때 손뼉치며 발을 구르는 표현이라든가, 슬플 때 가슴 두드리고 땅을 치

며 운다든가, 억울함을 당할 때 분노와 함께 그 판을 치고 나가는 것 등 인간본질의 사회적 몸짓이 생산적 노동의 몸짓과 함께 합해져 사회적이고 민중적이며 창조적인 몸짓으로 통일되어 나온다.

이러한 몸짓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인간적인 것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생산적인 몸부림이고, 인간적인 것을 재생산·획득하기 위해 싸우는 사회적 운동의 생산적 몸짓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몸짓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실천행위가 될 때 그것은 사회적 운동으로서의 춤이 된다.

㉔. 사회의 발전과 춤의 변화

인류가 형성된 이래 사회는 단계적으로 변화·발전하였다. 노동의 심화·확대는 원시사회의 공동체적 노동생산과 분배 형태를 무너뜨리고 개별노동(가족단위, 이익을 함께 하는 집단 등)과 사적소유의 형태가 자리잡는 노예제사회로 바뀌었다.

이후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 등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사회의 발전적 과정이라는 명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질곡과 모순을 수반하게 된다.

즉 사적소유의 개념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리면서 가진자와 못 가진자,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수탈하는 자와 수탈을 강요받는 자 등의 계급적 분열이 일어난 것이다.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화엄경중에서)고 했듯이 모든 삶은 삶 자체로서 절대평등하며 절대자유로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차별의 지경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대립과 투쟁이 심화·격화되었고, 생산활동을 통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비인간적이고 반생명적인 상황이 도처에서 치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춤도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즉 노동의 가치와 자기실현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과 삶 그 자체 있었던 춤이 균열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민중일반이 모두 잘 사는 바른 사회로의 발전이라야 모든 춤, 곧 모든 삶이 바로 서는 것이며, 모든 춤, 곧 모든 삶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발전과 춤의 발전은 동시적이며 하나인 것이다.

4. 춤과 진보

㉕. 역사의 창조와 춤

역사의 창조자는 물론 사람이다. 어려운 자연조건을 사람의 요구와 이해에 맞게 극복하면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즉 경제와 정치 문화 등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힘차게 역사를

일구어 왔다. 개개인이거나 집단적이거나 역사를 창조해온 사람의 힘은 자못 위대하고 숭고함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역사의 창조·사회발전에서, 진보적이며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반동적이며 부정적인 역할도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신과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빠져 반사회적·비인간적 행위를 서슴치 않는 사람 즉 반민중적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다. 이들이 역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사를 뒤로 돌리는 역행적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역사적 의식으로 각성된 대부분의 민중은 사회적 회향에 바탕을 둔 삶 즉 역사를 힘차게 창조하며 살아간다. 그들의 삶은 순수하고 생명력이 있으며, 인간적이고 사회적이다.

이들의 역사창조적 열의에 찬 몸짓, 결코 역사를 후퇴시키지 않는 몸짓, 역사창조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기쁨으로 끌어 안는 이 몸짓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창조로서의 춤이다.

L. 사회역사의 진보와 춤

사회역사는 반인간적·반사회적·반생명적인 것과의 끊임없는 투쟁속에서 필연적으로 진보한다. 사회진보는 사람이 자기실현의 극대화로서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것을 획득·발전시키기 위해서 일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실천행위이며 비인간적인 모든 구조와의 맞싸움이다. 그것은 또한 삶을 강요하는 적대적인 것과의 몸짓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몸짓을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대중일반 즉 민중이 주체가 되어 비인간적인 억압착취구조와 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보편적 해방과 역사의 진보”를 위한 입장에 서서 일하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투쟁하는 것이다. 즉 당하는 자가 주인으로 나서서 그의 염원의 세계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때에 그것을 진보라 할 수 있고 그 진보가 이루어 나가는 거대한 물줄기를 역사라 한다면, 춤이란 단순한 예술의 연장 내지 발전이 아니라,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몸짓이지 않으면 안된다.

춤은 역사의 진보를 빛어낼 때만이 자기 실체를 획득할 수 있다.

Ⅱ. 진보적 삶과 춤

앞서 지적했듯이 사람은 자기실현의 극대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진보적 삶을 계속하게 된다.

절대적 평등과 궁극적 자유가 전사회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모든 사람은 진보적 삶을 요

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진보적 삶을) 살아야 하는가? 즉 어떻게 춤을 출 것인가?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는 의미로 “사회적 진진운동, 즉 진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먼저 알아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며 살아갈 때 제대로 산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삶을 전력투구할 때 사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춤이란 완벽한 역사의 반영인데 역사안에 맺힌 삶을 풀고 그 삶을 제기는 역사적 몸짓이어야 한다. 즉 민중일반의 역사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나아가 그 역사의 매듭을 풀어 승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참되게 형상화해내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의 미세한 티끌속에도 지방세계가 있다」(법성계중에서)고 했다. 올바른 삶 올바른 춤이란 사회역사의 구석구석에서, 부서지고 흩어진 파편에서, 채이고 버려진 그늘에서, 전 역사 전 삶을 통감해야 한다. 삶의 부분이나 춤의 한 동작은 그것으로의 의미가 따로 떨어져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총체적 모습으로 체화되기 위해서 전 사회역사적으로 판통했을 때를 전제로 승고한 의미를 부여한다.

진정한 삶은 즉 진정한 춤은 모든 삶 (특히 왜곡되고 굴절된 삶)을 끌어 안고 하나가 되어 역사적 진보를 추동하는 몸짓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보편적 해방과 역사의 진보를 위해 사회역사적으로 자기를 실현할 때 제대로 사는 길이고, 그 실현을 구체적인 예술적 형상화로 빚어낼 때 제대로 춤추는 것이다.

맺 는 말

본 글에서는 춤의 의미를 뜻하는 본질적 물음으로서 춤의 정신적인 면, 즉 춤의 사상의 식적인 면을 다루어 보았다.

사람에게 있어서 춤은 사람이 사람으로 있게 하는 생명 그 자체인 것을 살펴 보았다. 사람의 생명본성으로서의 춤이란, 삶에서 자연스럽게 목적의식적으로 나온 자기실현의 몸짓임과 아울러 살풀이성으로서의 염원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몸짓임을 알았다.

다음으로, 본래는 춤과 노동이 하나였는데 사회변천과정에 따라 춤과 노동이 분리되며 춤의 본질이 변하기 시작했음을 살펴 보았다. 즉 원시공산제사회에서는 노동과 춤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노동이 춤이었고 춤이 곧 노동 그 자체이었다. 그러나 노동도구의 발달과 생산력의 증대는 공동체노동, 분배가 소규모집단의 개별노동과 사적소유를 발생시키면서 가진자와 못 가진자와의 사회적 차별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노동과 춤의 틈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춤의 본질은 사회적인 노동속에 있고 그 생산성에 따르는 몸짓의 예술적 연장,

발전이며, 끊임없이 인간적인 것을 획득·발전시키는 몸짓으로 그 몸짓은 역사의 진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이끌어 간다.

즉 춤이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사람이 노동의 생산을 높이고 그 결과를 전사회적으로 실현하면서 역사의 진보를 빛어 나가는 예술적 몸놀림인데,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로서의 개인의 최고의 삶을 사회역사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상미학적 표현이자 수단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비인간적이며 반생명적·억압적인 힘이 생산활동과 노동의 가치를 하나의 지배로 몰고 가면서 삶 전반의 본성이 일그러지고 파괴된 상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반생명적인 것을 생명적인 것으로, 비인간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반역사적인 것을 역사적인 것으로 되돌리는 즉 사람이 사람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작업이 바로 춤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본래 본성에서 벗어나고 파괴된 춤을 본래적 의미의 춤으로 회복시키면서, 삶의 총체적 표현이자 삶 그 자체인 춤을 발전적으로 끌고 나가는 창조적 작업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절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다.

참 고 문 헌

민해철, 노동자의 철학 I, 거름, 1986.

용수보살, 기신론

의상조사, 법성계

백장선사, 백장어록

불다, 화엄경